출혈경쟁 변호사 '법보다 밥'

선임료 할인 '박리다매'…재판준비 소홀·서비스 질 하락

광주 330명 활동 양극화 심각

#지난달 광주의 한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고 선임료로 5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의뢰인은 "비싸다"며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 250만원에 사건을 맡겼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실망한 의뢰인은 다시 처음 문의했던 변호사를 찾아와 부탁했다.

#"○○○변호사 연락 좀 해보세요." 2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한 민사법정에서 시간이 돼도 변호인석이 비어있자 재판장이 직원에게 지시했다. 직원의 핸드폰에는 지역 변호사들에게 보내는 문자가 가득 저장돼 있었다. 이 재판장은 또 한 변호사에게 "이제는 재판기일 변경 좀 그만 해주세요"라며 "경기도 김포가 집인 피고측이 내려오기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라고 부탁했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 변호사 업계 선임료의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330만원이 깨졌다. 부가가치세를 할인해주는 것은 물론 200만원대 선임료를 받고도 일하겠다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임료 하락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재판기일 변경 요청, 미흡한 재판 준비 등의 사례도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지역 변호사 수는 330명으로, 지난 2011년 말 276명에 비해 54명이 늘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업계가 '무한경쟁'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사건 선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가 양극화, 유명 변호사들은 선임료를 인상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선임료를 할인하면서까지 '고객 찾기'에 나서고 있다.

한 변호사는 "박리다매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일부 변호사들이 선임료를 낮추고 있는데, 도저히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없는 액수"라며 "말릴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결국 이 같은 출혈경쟁의 피해는 법률고객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들도 최근 변호사들의 잦은 기일 변경 요청, 법률에 기반하지 못한 준비서면 등에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기일이 자주 연기되면서 해당 판사의 업무량이 계속 쌓이고, 상대방 역시 불편한 법정 출석을 계속해야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한 판사는 "수임료가 적은 소액사건일수록 기일 변경도 잦고,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작성한 것 같은 준비서면이 제출된다"며 "가끔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손 깨끗이 씻었어요" 여름철 유행성 눈병 예방을 위해 광주 북구 보건소 교육장에서 열린 '눈병예방 손씻기 교실'에 참가한 중흥어린이집 아이들이 깨끗이 씻은 손을 흔들며 즐거워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싹한 광주의 '콩팥 괴담'

"구시청서 택시 탔는데 마취제 놓고 떼어갔다더라" 카톡·트위터 등 급속 확산

"아는 누나가 며칠 전 광주 구시청에서 택시를 탔는데, 마취제를 놓은 뒤 신장을 떼어 갔다더라. 술에 취한 여성들만 노린다는데…."

광주에서 '여대생 콩팥 적출 괴담'이 떠돌고 있다. 이 괴담은 현재 카카오톡이나 라인·트위터·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주 전부터 나돌기 시작한 이 소문은 '한 여성이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구시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보니, 배에 수술 자국이 나 있고 신장 하나가 없어졌다'는 내용이다.

이 괴담은 10대 후반~20대 젊은층 사이에 퍼지면서 "늦은 밤에 구시청에서 택시 타면 안 된다더라", "누가 직접 봤다더라", "진짜라더라"로 부풀려졌고, 심지어 인터넷 게시판엔 "피해자가 내 친구다", "피해자가 아는 여동생이다"라는 등의 글까지 실렸다.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접한 이들은 해당 글을 지인들에게 퍼 나르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동부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이미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며 "사건이 접수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간암 판정 고민 … 60대 실종

간암 판정을 받고 고민하던 60대 여성이 가족에게 쪽지를 남기고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택에 홀로 사는 김모(64)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김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자신의 집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수완지구로 가는 버스를 탔으며 김씨의 집에선 "아들아 미안하다. 보험금이 나오면 동생과 나눠 쓰라"는 내용 등이 담긴 쪽지가 발견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000억 횡령' 이홍하 징역 9년

순천지원 선고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할 각 학교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 학교 재정이 피폐해지고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비자금 규모,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설립한 각 대학 총장으로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김모(58) 총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신경대 송모(59) 총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총장에 대해서는 "학교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었지만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에 직접 관여한 점은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친척으로 이씨가 관리해온 법인기획실 책임자 한모(5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검찰, 2000만원대 채무자 30만원 구형

법원, "이대로는 선고 못해" 법정구속

검찰이 벌금 30만원을 구형한 2000만원대의 여성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법정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법원은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고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등 이 채무자의 불성실한 점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5)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벌금 3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대로는 선고할 수 없다"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부채를 생각하면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해 당분간 변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관의 초기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남편이 전달받은 소환장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애초 김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지 않은 구형으로 보고 정식 재판으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씨가 피해자에게 이미 돈을 빌려 갚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김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검찰조사에서는 빌린 돈에 대한 변제의사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기선로 담당 노조 준법투쟁…'電亂' 우려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원지부(이하 광전전기원지부)가 20일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사상 초유의 '전란'(電亂)이 우려되고 있다.

광전전기원지부는 지난 19일 노조원 53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92.3%가 찬성해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8일부터 최근까지 근로시간 문제를 놓고 10차례 가량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최종 조정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변전소에서 각 가정까지 전기 선로를 신설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장마철·폭염기 전기선로 사고 또는 변압기 고장 등 전기선로 사고 땐 복구 지연으로 원활한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여름철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2시간 휴식) 8시간 근무를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1시간 휴식) 10시간 근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 복구작업은 한전 자체 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안 부군수 숨진 채 발견

인사 비리 검찰 조사 앞둬

전북 부안군청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군수 박모(6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박씨의 시신은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20일 오전 11시께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의 자신의 선산 인근에서 발견됐다.

박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부안군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두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악명 높은 곡성 주취 폭력배 '엄벌'

쌍나팔

○…곡성 지역 공무원 사이에 악명을 떨친 40대 상습 주취 폭력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

○… 20일 광주지검 형사 3부(박석재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파출소, 군청 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공무원에게 폭언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

○…검찰은 이씨가 주취 폭력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폭언 등을 일삼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군청 직원들이 CCTV까지 설치하는 등 군청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 등을 구형에 반영했다고 설명.

/곡성=김계중기자 kjkim@